

학과

컴퓨터정보과

학번

201944036

이름

김주연

나의 대화스타일 진단(조해리의 창) 검사 및 자기탐색

활동지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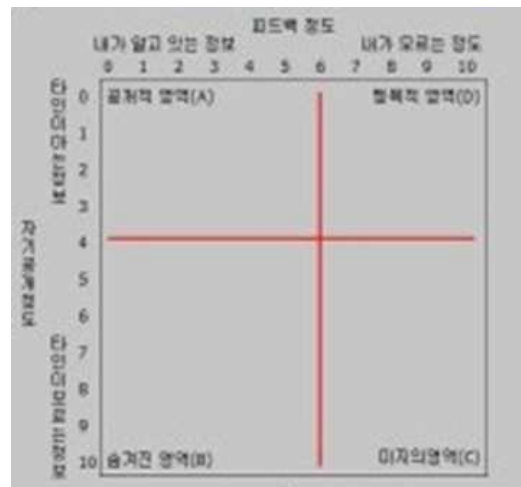
● [검사 실시] 나의 대화 스타일은 무엇일까?

문항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상대방 의견에 공감하면 이를 바로 인정한다.	1 2 3 4 5 6 7 8 9 10		
2. 나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들을 경우, 상황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잘 들어본다.	1 2 3 4 5 6 7 8 9 10		
4. 나의 의견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나의 느낌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한다.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한다.	1 2 3 4 5 6 7 8 9 10		
7. 나는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 다른 사람을 찾아가 터놓고 의논한다.	1 2 3 4 5 6 7 8 9 10		
8. 나는 혼자 이야기를 계속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10		
9. 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1 2 3 4 5 6 7 8 9 10		
10. 나는 누군가가 찾아오면 그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10		
11. 나는 상대방이 서운한 점을 표현하면 차분하게 그에게 설명한다.	1 2 3 4 5 6 7 8 9 10		
12. 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	1 2 3 4 5 6 7 8 9 10		
13. 나는 달가운 일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알려준다.	1 2 3 4 5 6 7 8 9 10		
14.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를 경우, 나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검토해본다.	1 2 3 4 5 6 7 8 9 10		
15. 나는 말하기 거북한 내용이라도 상대방에게 솔직히 말한다.	1 2 3 4 5 6 7 8 9 10		
16. 나는 나의 실수에 대해 상대방에게 변명을 하지 않고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6 7 8 9 10		
17. 나는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며 가식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10		
18. 나는 나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다.	1 2 3 4 5 6 7 8 9 10		
19. 나는 상대방에게 그의 생각을 편하게 말하도록 권장한다.	1 2 3 4 5 6 7 8 9 10		
20.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상대방을 잘 설득한다.	1 2 3 4 5 6 7 8 9 10		

● [채점 및 해석]

번호	1	2	5	7	11	13	14	15	17	20	총점 (T)
값	9	8	6	3	7	7	10	5	8	8	71
번호	3	4	6	8	9	10	12	16	18	19	총점 (L)
값	9	9	7	8	9	8	6	6	5	5	72

- 1, 2, 5, 7, 11, 13, 14, 15, 17, 20번에 답한 점수의 합 ÷ 10
: 세로 열인 말하기(신뢰, 노출) 점수에서 체크
- 3, 4, 6, 8, 9, 10, 12, 16, 18, 19번에 다한 점수의 합 ÷ 10
: 가로 열인 듣기(존중, 수용) 점수에서 체크
- 그런 다음 우측 그림처럼 선 연결



● [검사 결과]

[illegible]

● 조해리의 창 검사에서 드러난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 유형으로서의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고, 활동소감을 나누어 봅시다.

나의 특성

※ 예를 들면, 당신은 타인과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려는 사람인지, 주로 개방하는 대상은 누구(어떤 사람)인지, 타인에게 속사정을 개방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특별히 개방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타인으로 부터 어떤 충고들을 들어 왔는지, 충고에 대해 당신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든 충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연결하여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세요.

[검사를 통해 알게 된 자신의 면면 정리해보기]

주로 나에게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얘기에 너무 빠져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얘기는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다. 나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로 한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충고가 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런 충고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꺼리는 편이다. 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공개하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도 부담이 없는 부분들만 공개한다. 나를 겉으로만 드러내고 속으로는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

활동
소감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특성을 다시 마주한 것 같다.